문화광장

일상에서의 공포 생태학

김 정 호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뉴스와 영화에서 사건 사고를 너무 접하다 보면 갖게 되는 부작용이 일상에서의 공포 생태학이다. 할리우드 영화 내러티브의 공식은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영화가 시작해 그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적대자. 그것은 악당일 수도 있고 외계인, 지진 등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 사회 제도일 수도 있다. 주인공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인간에 대한 믿음이 싹트는 새로운 평화의 균형 잡힌 세계를 이루려 노력한다. 봉준호 감독의 '괴물'(2006)은 그런 할리우드 장르 영화 공식을 잘 보여주는데 살짝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부분은 무능하고 관료적인 정부를 대신해 해결사로 한강 변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별 볼 일 없는 소시민 송강호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미국영화에서처럼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괴물이나 외계인,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경우보다는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평범한 시민이 보여주는 영웅적 행위가 많이 등장한다.

너무나 영화 같아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임에도 믿을 수 없는 것은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미국의 911 테러와 세월호 침몰을 텔레비전 실시간 중계로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세월호를 보면서 '괴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우리 가족은 내가 지키고 살아야지. 나라가 지켜주지 않는다. 어린 시절, 4·3을 지내온 노모는 항상 속옷을 깨끗이 입어라, 비행기나 배에 일가족이 함께 타지 말고 서로 다른 편을 이용하라고 하셨다. 교통사고나 만일의 경우에 누가 나의 바지를 벗겼을 때 속옷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은 길거리에 버려진 시신을 지나치면서라도 목격하던가 혹은 그런 사례를 들어서 아는 조언일 것이다.

사람이 사람에게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간격은 대략 1m라고 한다. 그래서 서양 문화에서는 가족이나 애인, 친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범위 내에 들어오면 위험하다고 받아들이고 타인의 신체 접촉을 꺼린다. 문화가 다르고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이런 프라이버시 공간은 사치이며 출퇴근 시간에 매일같이 핼러윈의 이태원에 근접하는 밀고 당김을 경험하면서 개인적 안전 공간이라는 개념에 무감각해졌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m로 시행하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아 바닥에 거리를 표시하여 서게 하지 않았나.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뮤지컬 장르가 인기가 있듯이 어린 시절 어린이집, 영어 유치원, 학원 등에서 핼러윈을 접한 젊은 사람들에게 핼러윈은 추석이나 설날처럼 어른들이 강요한 행사가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행사이고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대학, 직업 등에 따른 서열화에 익숙한 세상에서 잠시나마 나를 얽매이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해방구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국화돼 있다. 어머니의 충고가 더 늘 것 같다. 사람이 지옥이다.

사설

일회용컵 보증금제, 준비 없이 서둘렀나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일부 업주들의 반발을 사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으로 주문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시행 첫날부터 일부 업주들이 참여를 거부하는가 하면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등 반응이 엇갈려 우려된다.

환경부는 지난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당초 올해 6월 커피판매점 등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매장 3만 8000곳에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가맹점주들의 반발로 6개월 미뤘다. 이번 적용 대상 매장은 제주 349곳, 세종 173곳 등 총 522곳이다. 제주는 올해 9월 기준 도내 커피전문점이 2057곳인 점을 감안하면 적용 대상 매장은 17%에 불과하다.

그런데 도내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시행 전부터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해 왔다. 이들은 영세한 소규모 프랜차이즈 매장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현재 수거와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번거롭고 서로 다른 업체 간 '교차반납'도 안돼 얼마나 효과를 볼지 의문이다. 환경단체에서도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일회용컵 회수율과 재활용률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매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비자가 편리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보호를 위한 취지인만큼 매장이나 소비자가 원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미래 제주 자원봉사 '메카', 더 힘 모으자

자원봉사자 보호와 예우가 대폭 강화돼 자원봉사 활성화에 새 전기를 맞을 지 주목된다. 우수 자원봉사자는 이웃사랑 실천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해 지역사회 봉사운동에 불을 댕길 수 있어서다. 이번 자원봉사 지원 확대가 도의회·도간 협의 후 조례로 진행되는 과정도 정책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박호형 의원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공공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보호와 예우를 강화할 여러 방안들을 담았다. 주 내용은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제 외에 도 주요행사 참석시 예우, 해외 자원봉사·국내 연수 포상시 우선 추천, 누적 봉사 5000시간 이상시 인증패,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등이다.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은 누적 1000시간 이상 봉사한 본인·배우자에게 일정액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제주사회가 자원봉사자 감소를 겪는 현실에서 노후 최대 부담 요인으로 떠오른 간병비를 실비 보상토록 한 획기적 제도다.

자원봉사가 남을 위해 헌신하는 순수 행위라 '대가'를 강조할 순 없다. 그렇지만 지역사회는 늘 묵묵히 일하는 이들을 최대한 우대해 봉사자 부족 현실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피는 시책들엔 역점을 두면서 자원봉사자들 챙기기를 소홀해서도 안된다. 자원봉사자 예우가 만시지탄이지만 조기 시행돼 미래 제주를 자원봉사의 메카로 자리매김케하는 '초석'이길 기대한다.

열린마당

골든타임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강 성 택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 몇 년간 암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심장질환과 폐렴, 뇌혈관질환이 차지한다. 특히 심장의 문제로 인한 심정지는 다른 질환과 달리 갑작스럽게 발생해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심폐소생술은 두 손이 만들어낸 4분의 기적이라 불린다. 심정지 후 골든타임은 단 4분으로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심폐소생술은 일반인이 하기도 쉬워 회사 및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도 119 구급대가 이송한 급성 심장정지 환자는 3만 3235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64.7명이다. 남자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률은 증가해 70대는 인구 10만 명당 199.2명, 80대 이상은 513.5명이다. 제주는 10만 명당 101.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일반인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는 28.8%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은 11.6%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5.3%보다 2배 이상 높다.

심정지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 4분!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딱 한 번의 위급상황에서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고향사랑기부제 기획·홍보에 총력"

출자·출연기관의 연계 주문

○…오영훈 제주지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홍보 및 대응 강화에 만전을 주문.

오 지사는 5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12월 도정현안 및 정책 공유회의' 자리에서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제주도와 봉은사의 협약이 중앙 방송에 비중 있게 보도돼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주와 고향사랑기부제를 효과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도록 기획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이 수도권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어지도록 각 실·국은 내년부터 출자·출연기관과 연계해 관련 단체들과 홍보방안을 고민하라고"고 당부. 고대로기자

제주어 상담 창구 폐쇄 위기

○…제주학연구센터가 소멸 위기 제주어를 보전하고 제주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2019년 개통해 제주어에 대한 전문 상담 창구 역할을 수행해왔던 '제주어종합상담실' 전용 전화번호(1811-0515)가 폐쇄 위기를 맞았다며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소.

센터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내년도 제주학연구센터 사업비 중 '제주어종합상담실' 예산이 전액 삭감.

센터측은 "'제주어종합상담실'이 한 해 상담 건수가 320여 건이라는 수치로 상담 전반의 실효성을 문제 삼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상담실이 폐쇄되는 것은 제주어의 대중화와 확산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성토. 오은지기자

부 고

김옥숙 어머니 **전주이씨 재수(향년 96세)**께서 서기 2022년 12월 4일 10시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2년 12월 6일(화요일)
▶발인일시 : 2022년 12월 7일(수요일) 오전 9시
▶발인장소 : 하귀농협장례식장 201분향실
▶장 지 : 양지공원

딸 김옥숙 사위 장복익
김연숙
김수연
김수경 차태환
김관덕

※ 연락처 : 장복익 010-4551-5384
차태환 010-3691-3399
김수경 010-4693-3383
김관덕 010-8944-3580

부 고

안용휘 어머니 **진주강씨 춘희(향년 71세)**께서 서기 2022년 12월 4일 22시 4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2년 12월 6일(화요일)
▶발인일시 : 2022년 12월 7일(수요일) 오전 10시
▶발인장소 : 제주시 제주광양성당
▶장 지 : 제주시 한림읍 가족 납골당

아 들 안용휘 며느리 김지은

딸 안수영 사위 정재열

※ 연락처 : 안용휘 010-6230-5105
안수영 010-8660-4242

유상감자에 따른 주권제출 및 채권자 보호절차 공고

당사는 2022년 12월 2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다음과 같이 유상감자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당사의 공고방법인 한라일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오니, 해당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상감자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유상감자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 음-

1. **유상 감자 전후 발행주식 및 자본금**
-감자 전 : 30,000주 및 금 삼억원 (₩300,000,000)
-감자 후 : 1,000주 및 금 일천만원(₩10,000,000)
2. **감자 대상 주식** : 보통주 29,000주 (주당 액면가 10,000원)
3. **자본 감소 방식** : 유상소각 (주당 매입가격 10,000원)
4. **주권제출 및 이의제출방법** : 우편발송
5. **주권제출 및 이의제출기간** : 신문공고 익일부터 한달이내

2022년 12월 6일

주식회사 제주국제예술학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5길 6, 6층(일도일동)
대표이사 이 종 국

합병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갑) 청담산업 주식회사와 (을) 유일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각 2022년 12월 5일 임시주주총회(총주주결정)의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에 수반하여 (갑)의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35,000주에 대하여 (을)에 금 10,000원의 보통주식 70,000주를 교부하여 1:1의 비율에 의한 주식을 교부하기로 하였으므로 주식의 병합에 필요하오니,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본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합니다.

2022. 12. 6.

(갑) 청담산업 주식회사
제주시 연삼로 406, 1103호 (이도이동, 해마루빌)
사내이사 현 순 찬

(을) 유일종합건설 주식회사
제주시 연삼로 406, 1103호 (이도이동, 해마루빌)
사내이사 현 순 찬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 50,000원
전화 010-7301-7737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